

# 2022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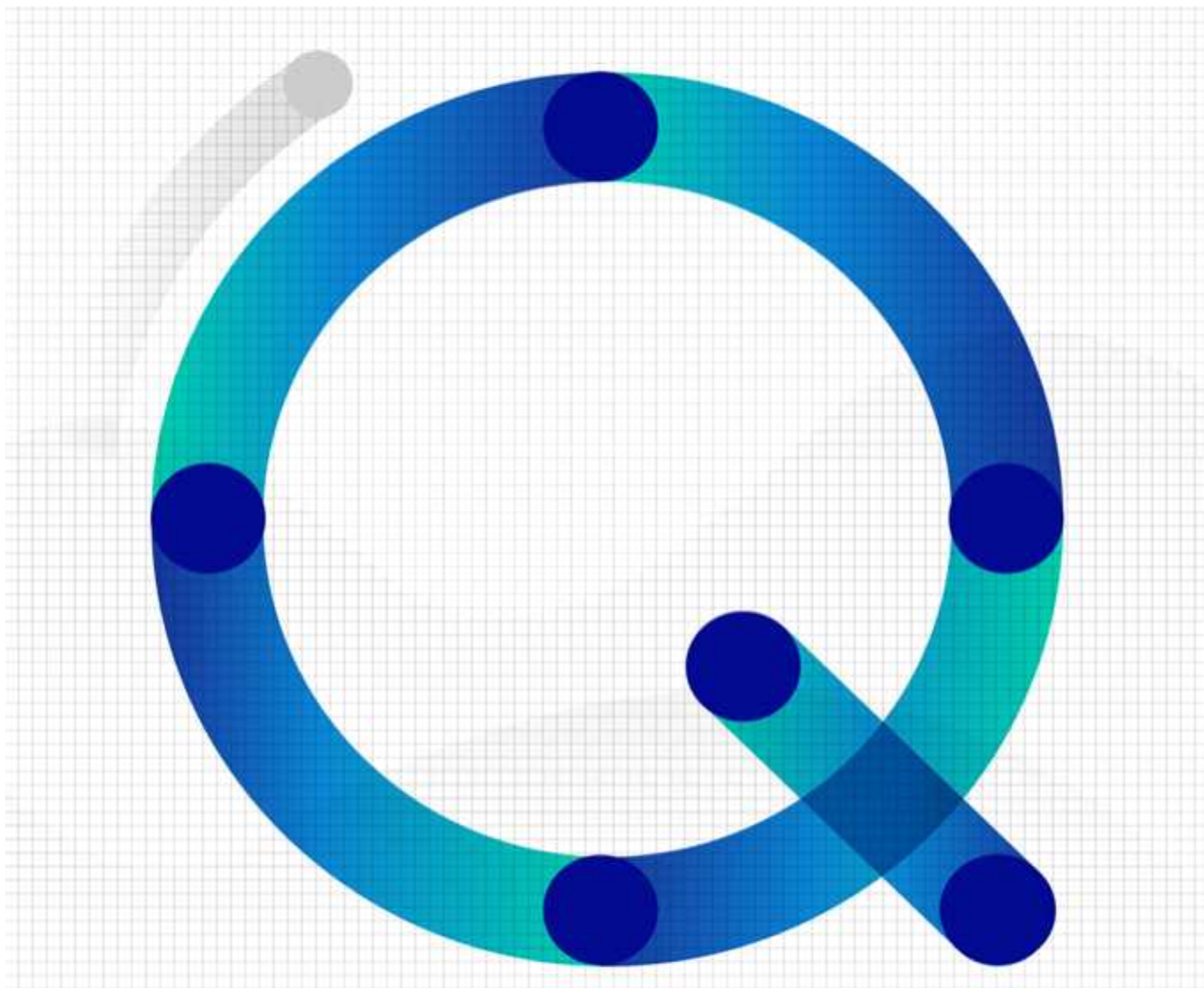
I. 2022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II. 2022년 3분기 수출 전망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작성

수석연구원 김윤지 (02-6252-3607)





## <요 약>

### I. 2022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 2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13.0%, 전기 대비로는 2.1% 증가

- 2022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567억 달러) 대비 13.0%, 전분기(1,734억 달러) 대비로는 2.1% 증가한 1,771억 달러
- 7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증가를 지속했으며, 20개월 연속 수출 증가 기록
-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일반기계, 선박 등은 하락 전환, 지역별로는 중국, CIS 등이 하락
-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동기(3,031억 달러) 대비 15.6% 증가한 3,505억 달러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5p 하락한 94 기록

- 수출입 물가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수출단가 평가(전기대비 6p ↓) 및 생산원가 평가(전기대비 9p ↓)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생산원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 수출채산성은 전기 대비 상승, 수출 물량은 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하락

####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				'21				'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평가지수	70	69	98	97	104	99	94	101	93	94
수출채산성평가지수	80	77	97	96	97	96	95	100	90	94
수출단가평가지수	100	97	101	100	111	116	118	116	125	119
생산원가평가지수	106	103	106	109	127	133	132	133	144	135
수출물량평가지수	68	68	100	100	108	103	98	107	97	97
자금사정평가지수	83	83	97	97	101	97	96	99	93	94

- 수출채산성은 신재생에너지, 해운, 자동차 등은 상승, 섬유류는 하락, 수출물량은 섬유류, 석유화학, 전기전자, 철강/비철금속 등에서 하락

####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금속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플랜트/해건	신재생에너지	선박	문화콘텐츠	대기업	중소기업
'22.1Q	95	93	94	90	89	100	88	88	104	88	91	93
'22.2Q	95	95	93	90	95	91	100	91	100	100	94	94



## II. 2022년 3분기 수출 전망

###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1.5p, 전기 대비 3.5p 상승

- '22년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38.8로 전년동기 대비 11.5p 상승, 전기 대비로도 3.5p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7분기 연속, 전기 대비로도 8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겠으나, 전년동기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은 완화 예상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용 수입액 등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수출대상국 경기 성장률, 제조업 신규주문 등은 다소 위축

####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선행지수	112.9	111.6	101.1	112.6	116.7	120.9	127.3	131.8	133.5	135.3	<b>138.8</b>
전년동기대비 증감(p)	△7.2	△3.2	△14.0	△3.0	3.8	9.3	26.1	19.2	16.8	14.4	<b>11.5</b>
전기대비 증감(p)	△2.7	△1.3	△10.5	11.5	4.1	4.2	6.3	4.6	1.7	1.8	<b>3.5</b>

### 수출물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증가폭은 축소

- 수출대상국 경기 :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중국도 지역 봉쇄 등의 여파로 전기 대비 성장세 둔화, 반면 일본, 인도 등은 안정적 성장 기조 유지

※ 수출대상국 경가지수(성장세 반영, 2010=100) : 162.4('21.3Q)→163.1(4Q)→163.4('22.1Q)→**164.2(2Q)**

※ 수출대상국 경가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6.2('21.3Q)→4.1(4Q)→2.4('22.1Q)→**1.7(2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재고 증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위축 영향으로 2분기 지수가 전기 대비 5.2p 하락한 52.6 기록, 6월 지수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5월(31.8)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50) 이하인 49.2를 기록해 경기 위축 시사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65.8('21.2Q)→66.1(3Q)→60.6(4Q)→57.8('22.1Q)→**52.6(2Q)**

- 가격 경쟁력 : 인플레이션 확대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무역수지 적자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확대 등으로 달러 강세는 더 심화돼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기대비 4.5% 상승한 달러당 1,259.6원 기록,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상승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21.2('21.2Q)→1,157.4(3Q)→1,183.2(4Q)→1,205.0('22.1Q)→**1,259.6(2Q)**



- **수출물가** : 높은 수준의 원유 가격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수출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겠으나,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고, 반도체 단가도 하락 전환함에 따라 3분기 이후 수출물가 상승폭은 축소될 전망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07.0('21.2Q)→110.4(3Q)→110.6(4Q)→112.6('22.1Q)→**117.2(2Q)**
- **D램 가격**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3분기 이후 하향세를 나타낼 전망  
※ D램 가격 (\$,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3.96('21.3Q)→3.75(4Q)→3.50('22.1Q)→3.50(2Q)→**3.30(3Q)**
-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 둔화로 석유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소폭 하락 전망 우세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3.5('22.1)→92.4(2)→110.9(3)→**102.8(4)→108.2(5)→113.3(6)→103.1(7.15)**
- **주요 산업** : 전반적인 물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 수출 증가폭은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
- **반도체**는 코로나 특수로 늘어났던 노트북, PC용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하락함에 따라 수출 성장세는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전망

### 2022년 3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 전망

- **수출물가 상승** 및 **수출선행지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고, **신규주문 감소** 등 **주요국 경기도 둔화**되고 있어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한 1,775억 달러** 내외 전망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1.2Q) 1,567→**(3Q) 1,645**→(4Q) 1,767→('22.1Q) 1,734→(2Q) 1,771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21.2Q) 42.0→(3Q) 26.5→(4Q) 24.5→('22.1Q) 18.4→(2Q) 13.0
- 다만,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 확대** 등으로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경우 수출 증가폭은 더 축소될 수 있음.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원재료 가격 상승'(61.0%), '원화환율 불안정'(39.7%), '해상 물류 불안정'(23.6%) 순 응답

- 원유, 철근 가격 상승 지속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54.8%→61.0%) 응답률이 증가하면서 전분기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원화환율 불안정'**(26.4%→39.7%) 응답도 크게 증가
- **'해상 물류 불안정'**(33.3%→23.6%),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19.4%→16.5%) 응답률은 전기대비 하락, 반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6.5%→10.2%) 응답률은 증가



## I. 2022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 2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13.0%, 전기 대비로는 2.1% 증가

- 2022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567억 달러) 대비 13.0%, 전분기(1,734억 달러) 대비로는 2.1% 증가한 **1,771억 달러**
- 7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증가를 지속했으며, 20개월 연속 수출 증가 기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 확대 속에서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출 물가 상승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 유지
-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일반기계, 선박 등은 하락 전환, 지역별로는 중국, CIS 등이 하락
-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동기(3,031억 달러) 대비 15.6% 증가한 **3,505억 달러**

####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액	1,302	1,103	1,301	1,419	1,464	1,567	1,645	1,767	1,734	<b>1,771</b>
증감률(%)	△1.9	△20.3	△3.4	4.2	12.5	42.0	26.5	24.5	18.4	<b>13.0</b>
수출물가지수	91.8	87.5	90.5	93.7	99.8	107.0	110.4	110.6	112.6	<b>117.2</b>
증감률(%)	△8.2	△11.0	△5.5	△0.3	8.7	22.3	22.0	18.1	12.8	<b>9.5</b>
수입물가지수	99.6	91.0	94.5	97.7	107.4	113.6	119.1	123.4	131.5	<b>136.7</b>
증감률(%)	△7.6	△15.6	△9.8	△5.9	7.9	24.8	26.1	26.3	22.4	<b>20.3</b>
수출물량지수	110.9	99.2	114.3	121.2	116.4	118.5	119.9	126.6	124.2	<b>122.7*</b>
증감률(%)	5.9	△10.0	3.0	4.9	5.0	19.4	4.9	4.5	6.7	<b>3.5</b>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주: 수출입물가지수는 달러화 기준, 수출입물가지수 및 수출물량지수는 2015=100,

\*2분기 수출물량지수는 4~5월 평균



## 중국 지역 봉쇄 영향으로 일반기계 수출 감소, 반도체·석유화학은 수출 증가폭 축소

- 반도체(13.6%)는 견조한 서버 수요로 2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 지역 봉쇄 및 소비자용 IT 수요 둔화 영향으로 수출 증가폭은 축소  
※ D램가격(\$, DDR4\_8Gb, 고정가격) : 3.05('21.1Q)→3.80(2Q)→3.96(3Q)→3.75(4Q)→3.50('22.1Q)→**3.50(2Q)**
- 석유화학(6.9%)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 수출단가는 높게 유지되었으나 중국 지역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폭 축소
- 일반기계(△3.2%)는 미국·베트남 등의 인프라·설비투자 확대는 이어지고 있으나, 중국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對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수출 하락 전환  
※ 일반기계 對중국 수출액 증감률(%) : △31.8('22.1)→△31.8(2)→△15.9(3)→△**29.6(4)**→△**21.5(5)**→△**28.7(6)**
- 자동차(6.9%)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CIS 수출 감소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SUV, 전기차 수요 증가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회복
- 선박(△6.5%)은 2020년 수주량 감소 영향으로 수출 감소 지속
- 무선통신기기(9.0%)는 국내 부품 선호 확대 및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부품단가 상승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4월	5월	6월
반도체	14.0	29.7	36.3	34.6	29.0	<b>13.6</b>	15.8	15.0	10.7
석유화학	26.1	80.0	64.0	54.1	26.3	<b>6.9</b>	7.0	14.1	△0.4
일반기계	△1.4	21.1	15.8	9.9	5.5	<b>△3.2</b>	△0.2	3.1	△11.7
자동차	31.4	74.7	6.5	4.9	△0.4	<b>6.9</b>	6.0	18.9	△2.7
석유제품	△17.0	110.3	71.6	113.7	90.7	<b>88.2</b>	75.2	107.0	81.7
선박류	28.2	11.8	△1.4	22.9	△45.3	<b>△6.5</b>	△16.7	44.8	△36.0
무선통신기기	21.4	38.5	25.7	12.2	17.1	<b>9.0</b>	8.3	8.4	10.6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 미국·아세안 등은 수출 호조세 유지, 중국은 지역 봉쇄 영향으로 하락 전환

- **중국 수출(△1.0%)**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양호하나 지역 봉쇄 조치로 인한 공장 가동률 하락과 소비 위축 영향으로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 하락 전환
- **미국(22.3%)**은 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수출 단가가 개선되고 전방산업인 건설·자동차 등의 회복으로 석유화학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22개월 연속 수출 증가 지속
- **EU(10.8%)**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화학·자동차 수출 등은 감소했으나, 인프라 구축 확대에 의한 철강 수요 증가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 **아세안(25.7%)**은 경기 확장 및 대규모 인프라 사업 확대에 반도체·철강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수출 단가도 상승하면서 수출 증가세 지속
- **CIS(△43.2%)**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및 차부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4개월 연속 수출 감소 기록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4월	5월	6월
중국	25.0	22.9	19.8	24.2	15.5	△1.0	△3.4	1.2	△0.8
미국	19.9	52.0	27.4	22.6	13.9	22.3	27.1	29.2	12.2
일본	△4.9	33.0	28.9	27.6	15.2	9.1	6.0	19.9	2.2
아세안	△4.8	47.4	26.4	28.2	38.4	25.7	38.4	23.0	16.7
EU(27)	30.9	56.4	32.3	18.5	5.9	10.8	7.3	23.4	2.4
베트남	6.3	43.2	13.6	12.2	30.7	16.0	24.6	18.6	5.5
중남미	4.5	84.1	45.0	17.3	24.1	11.7	15.9	32.4	△8.3
CIS	△13.8	39.2	31.3	27.4	5.4	△43.2	△46.6	△37.9	△44.6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입 물가 전년동기 대비 상승 지속

- **수출물가(달러화 기준)**은 정유제품 수출 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9.6%, 전기 대비로도 4.1%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
- 정유제품은 유가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88.0%, 전기 대비로도 25.1% 상승했으나, 철강제품은 전년동기 대비 13.1% 증가해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7.8% 하락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60.1('21.1Q)→ 66.9(2Q)→ 71.7(3Q)→ 78.4(4Q)→ 95.6('22.1Q)
- **수입물가(달러화 기준)**도 원유, 1차금속제품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61.4%, 17.0%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0.3%, 전기 대비 3.9% 상승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 가. 전체 수출업황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5p 하락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5p 하락, 전기 대비로는 1p 상승한 94
- 수출단가 대비 생산원가 하락폭이 더 두드러져 수출채산성은 전기 대비 상승, 수출 물량은 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입 물가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수출단가 평가(전기대비 6p ↓) 및 생산원가 평가(전기대비 9p ↓)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생산원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 종합적인 수출채산성은 전기 대비 4p 상승한 94
- (수출물량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6p 하락, 전기와는 동일 수준인 97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3p 하락, 전기 대비 1p 상승한 94 기록

####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				'21				'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평가지수	70	69	98	97	104	99	94	101	93	94
수출채산성평가지수	80	77	97	96	97	96	95	100	90	94
수출단가평가지수	100	97	101	100	111	116	118	116	125	119
생산원가평가지수	106	103	106	109	127	133	132	133	144	135
수출물량평가지수	68	68	100	100	108	103	98	107	97	97
자금사정평가지수	83	83	97	97	101	97	96	99	93	94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 나. 규모별 · 산업별 · 수출 지역별 수출업황

#### 기업규모별 : 대기업(91p→94p) · 중소기업(93p→94p) 모두 전기 대비 상승

- 수출채산성은 대기업이 8p, 중소기업은 3p 상승하였고, 수출물량은 대기업은 8p 상승, 중소기업은 1p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업 업황이 더 개선된 것으로 평가





**산업별 : 플랜트/해건(88p→100p), 자동차(89p→95p)는 업황 개선, 섬유류(100p→91p)는 하락**

- 수출채산성은 신재생에너지(75p→95p), 해운(89p→107p), 자동차(84p→97p) 등은 상승, 섬유류(100p→91p)는 하락
- 수출물량은 신재생에너지(63p→100p), 플랜트/해외건설(88p→103p), 자동차(93p→103p), 문화콘텐츠(88p→95p) 등은 상승, 섬유류(104p→91p), 석유화학(96p→90p), 전기전자(99p→94p), 철강/비철금속(102p→97p) 등은 하락

**수출지역별 : 유로존(90p→94p) 등은 업황 개선, 중국(95p→93p), 동남아(93p→91p)는 하락**

- 수출채산성은 중동(68p→90p), 중남미(75p→95p) 등에서 전기대비 크게 상승
- 수출물량은 중남미(79p→109p), 중동(82p→90p)에서 상승, 중국(98p→92p), 동남아(94p→90p) 등은 하락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22. 1/4	2/4	'22. 1/4	2/4	'22. 1/4	2/4
전 체		93	94	90	94	97	97
규모	대 기 업	91	94	88	96	89	97
	중 소 기 업	93	94	91	94	98	97
산업	전 기 전 자	95	95	96	94	99	94
	기 계 류	93	95	93	93	101	100
	철 강 / 비 철 금 속	94	93	94	99	102	97
	석 유 화 학	90	90	88	89	96	90
	자 동 차	89	95	84	97	93	103
	섬 유 류	100	91	100	91	104	91
	플 랜 트 / 해 외 건 설	88	100	86	93	88	103
	신 재 생 에 너 지	88	91	75	95	63	100
	선 박	104	100	96	100	106	105
	문 화 콘 텐 츠	88	100	88	95	88	95
	해 운	89	104	89	107	104	107
수출 지역	북 미	96	96	95	97	102	101
	중 국	95	93	92	92	98	92
	일 본	95	96	92	94	100	98
	유 로 존	90	94	94	94	98	101
	동 남 아	93	91	85	92	94	90
	중 남 미	83	91	75	95	79	109
	중 동	82	83	68	90	82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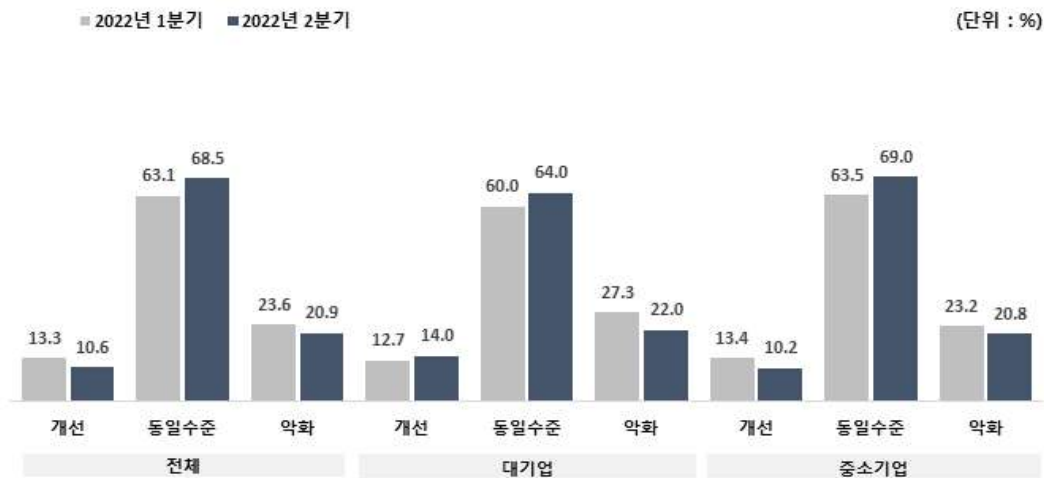
###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분석

#### 가. 수출업황 평가 분포 현황 (응답 기업 521개사)

수출업황 '개선' 10.6%, '동일 수준' 68.5%, '악화' 20.9%로 악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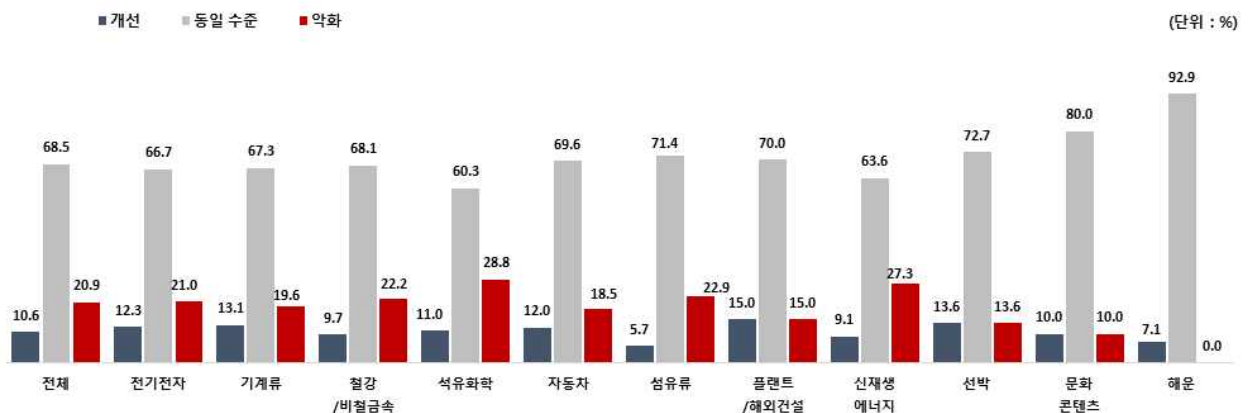
- 전기 대비 '개선' 및 '악화' 응답 모두 각각 2.7%p 감소해 전기에 이어 수출 업황 악화 우세 지속
- (규모별) 전기 대비 '악화' 응답은 대기업 5.3%p, 중소기업 2.4%p 감소, '개선' 응답은 대기업 1.3%p 증가, 중소기업 3.2%p 감소해 대기업의 평가가 더 긍정적

#### 2분기 수출업황 평가 : 기업규모별



- (산업별) '개선' 응답은 플랜트/해외건설(4.8%→15.0%), 문화콘텐츠(0.0%→10.0%), 신재생에너지(0.0%→9.1%)에서 증가, '악화' 응답은 석유류(13.9%→22.9%)에서 증가

#### 2분기 수출업황 평가 :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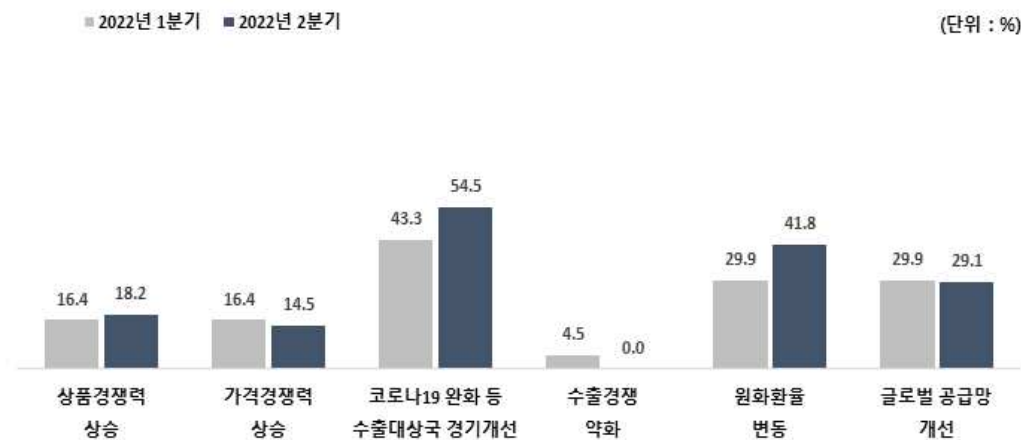


##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전체 설문 기업 521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55개사, 복수응답)

### '코로나19 완화 등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54.5% , '원화환율 변동'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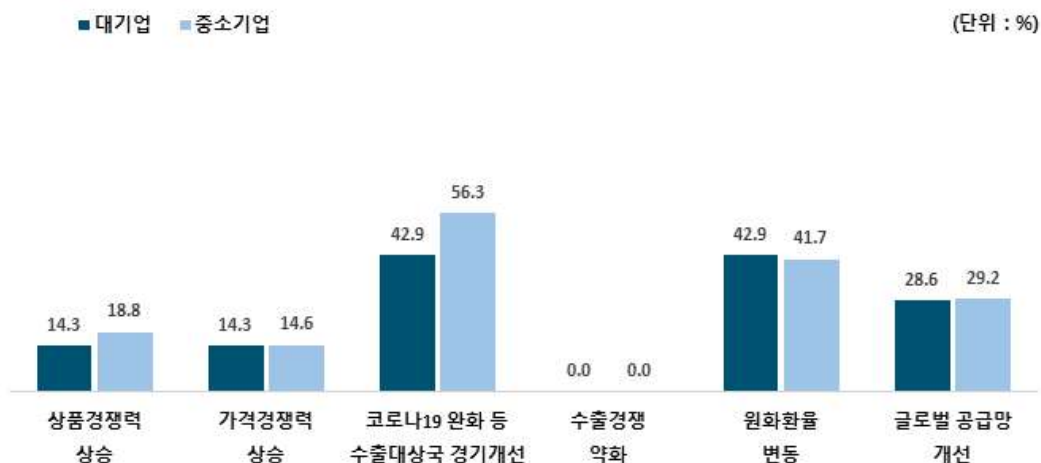
- '코로나19 완화 등 수출대상국 경기개선'(43.3%→54.5%)이 전기에 이어 최대 비중, 환율 상승 영향으로 '원화환율 변동' (29.9%→41.8%) 응답도 증가, '글로벌 공급망 개선'(29.9%→29.1%)은 전기와 유사한 수준

###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전체



- (규모별) 업황 개선 원인으로 대기업은 '코로나19 완화 등 수출대상국 경기개선'과 '원화환율 변동'을 각각 42.9%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완화 등 수출대상국 경기개선'(56.3%)을 가장 많이 응답
- 대기업은 그 다음으로 '글로벌 공급망 개선'(28.6%)을, 중소기업은 '원화환율 변동'(41.7%), '글로벌 공급망 개선'(29.2%)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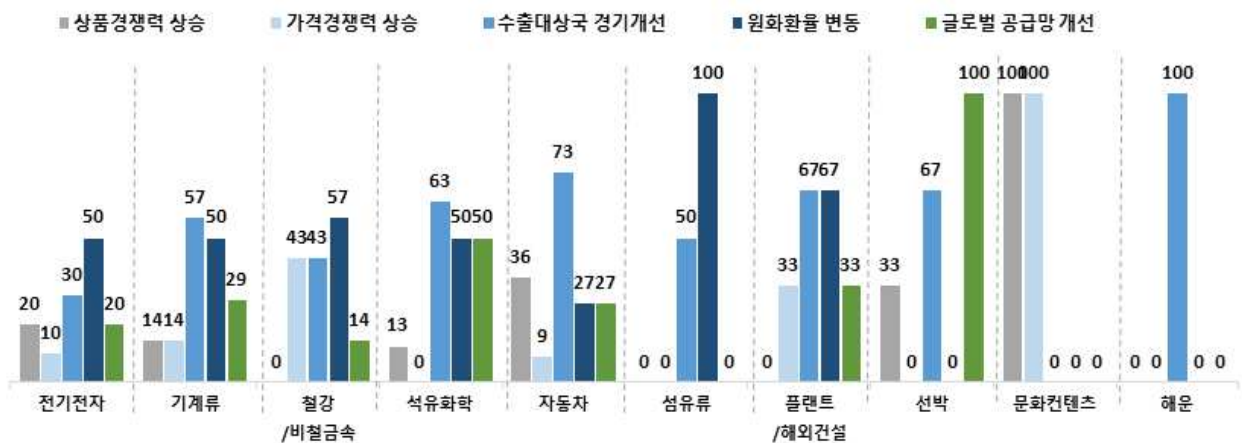
###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기업 규모별





- (산업별) 해운(100%), 자동차(73%), 플랜트/해외건설(67%), 선박(63%) 등이 '코로나19 완화 등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을 업황 개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
- '원화환율 변동'은 석유류(100%), 플랜트/해외건설(67%), 철강/비철금속(57%), 기계류(50%), 전기전자(50%), 석유화학(50%) 등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 '글로벌 공급망 개선'은 선박(100%), 석유화학(50%), 플랜트/해외건설(33%) 등에서 높게 응답

##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산업별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원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상승	가격경쟁력 상승	코로나 19 완화기 개선	수출경쟁 력 변화	원화환율 변동	글로벌 수출 증가
규모	전체	18.2	14.5	54.5	0.0	41.8	29.1
	대기업	14.3	14.3	42.9	0.0	42.9	28.6
	중소기업	18.8	14.6	56.3	0.0	41.7	29.2
	전 자	20.0	10.0	30.0	0.0	50.0	20.0
산업	기계	14.3	14.3	57.1	0.0	50.0	28.6
	철강/비철	0.0	42.9	42.9	0.0	57.1	14.3
	유동화	12.5	0.0	62.5	0.0	50.0	50.0
	자선물	36.4	9.1	72.7	0.0	27.3	27.3
	반도체	0.0	0.0	50.0	0.0	100.0	0.0
	플라스틱	0.0	33.3	66.7	0.0	66.7	33.3
	신재생에너지	0.0	0.0	0.0	0.0	0.0	0.0
	서비스	33.3	0.0	66.7	0.0	0.0	100.0
	문화콘텐츠	100.0	100.0	0.0	0.0	0.0	0.0
	해운	0.0	0.0	100.0	0.0	0.0	0.0
수출 지역	북중일	19.0	19.0	61.9	0.0	47.6	19.0
	영미	0.0	28.6	71.4	0.0	42.9	42.9
	일본	33.3	16.7	16.7	0.0	33.3	50.0
	동남아	50.0	0.0	33.3	0.0	16.7	33.3
	중동	8.3	0.0	66.7	0.0	41.7	25.0
	기타	0.0	0.0	50.0	0.0	50.0	50.0

주 : 전체 설문 521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55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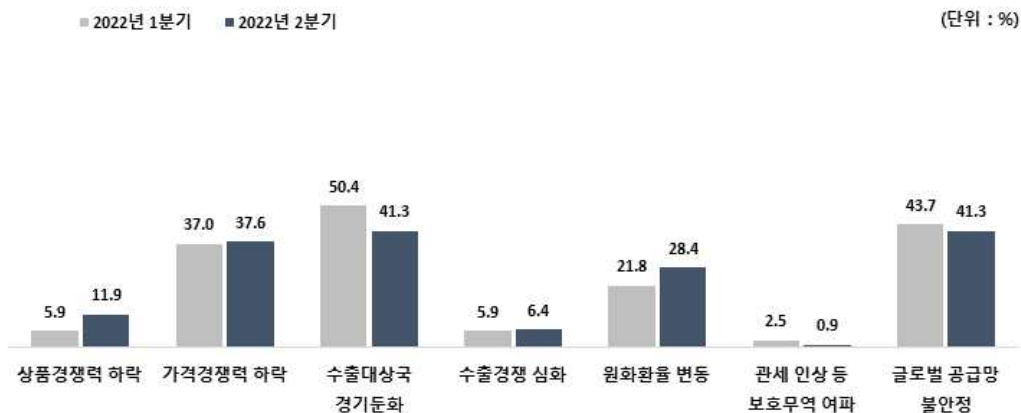


##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전체 설문 521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09개사, 복수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41.3%),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41.3%) 최다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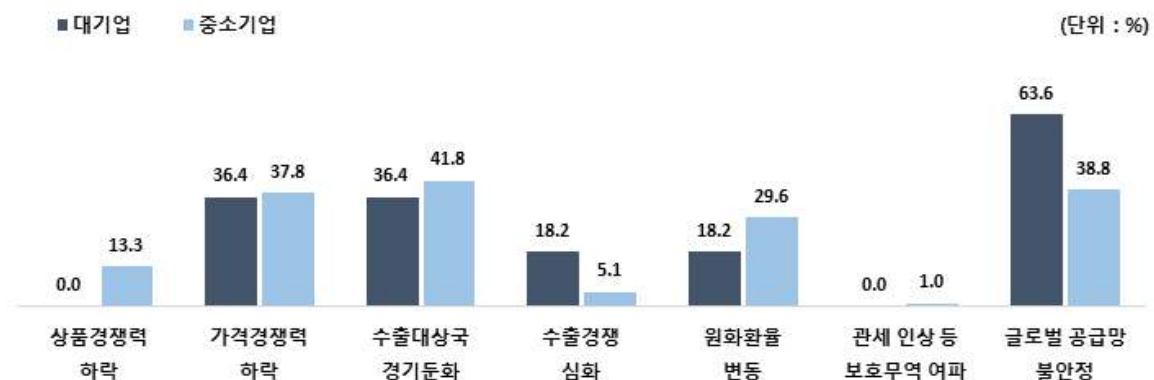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50.4%→41.3%)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43.7%→41.3%)이 전기에 비해 각각 9.1%p, 2.4%p 하락했으나 여전히 수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중남미(100%)**, **북미(57.6%)**, **중국(52.9%)**인 기업에서 많이 응답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선박(66.7%)**, **석유화학(52.4%)**, **기계류(42.9%)**, **전기전자(41.2%)** 산업에서 많이 응답

### 2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전체



- (규모별)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63.6%)을,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41.8%)를 가장 많이 선택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경우 대기업(40.0%→63.6%)은 전기 대비 23.6%p 증가, 중소기업(44.2%→38.8%)은 감소,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대기업(60.0%→36.4%), 중소기업(49.0%→41.8%) 모두 감소

### 2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기업규모별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원인

(단위 : %)

구분		상 경 하	품 경 하	가 경 하	격 경 하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수 경 심	출 경 화	원 경 변	화 경 동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	글로벌 공급망 안정
전 체		11.9		37.6		41.3	6.4		28.4		0.9	41.3
규 모	대 기 업	0.0		36.4		36.4	18.2		18.2		0.0	63.6
	중 소 기 업	13.3		37.8		41.8	5.1		29.6		1.0	38.8
산 업	전 기 전 자	5.9		17.6		47.1	5.9		17.6		0.0	41.2
	기 계 류	0.0		38.1		47.6	9.5		38.1		0.0	42.9
	철 강 / 비 철	25.0		43.8		43.8	12.5		25.0		0.0	37.5
	석 유 화 학	14.3		42.9		28.6	9.5		14.3		4.8	52.4
	자 동 차	17.6		52.9		35.3	0.0		47.1		0.0	41.2
	섬 유 류	0.0		25.0		50.0	0.0		50.0		0.0	25.0
	플 란트/해 건	33.3		33.3		66.7	0.0		33.3		0.0	33.3
	신재생에너지	33.3		66.7		66.7	0.0		33.3		0.0	0.0
	선 박	0.0		0.0		66.7	0.0		0.0		0.0	66.7
	문 화 콘 텐 츠	0.0		0.0		100.0	0.0		0.0		0.0	0.0
수출 지역	북 미	15.2		33.3		57.6	6.1		24.2		3.0	45.5
	중 국	0.0		23.5		52.9	11.8		23.5		0.0	52.9
	일 본	22.2		44.4		11.1	0.0		77.8		0.0	11.1
	유 로 존	15.4		30.8		30.8	7.7		15.4		0.0	61.5
	동 남 아	14.3		50.0		32.1	7.1		25.0		0.0	28.6
	중 남 미	0.0		50.0		100.0	0.0		0.0		0.0	50.0
	중 동	0.0		33.3		16.7	0.0		50.0		0.0	50.0

주 : 전체 설문 521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09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 Ⅱ. 2022년 3분기 수출 전망

### 1. 수출선행지수 추이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1.5p, 전기 대비 3.5p 상승

- '22년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38.8로 전년동기 대비 11.5p 상승, 전기 대비로도 3.5p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7분기 연속, 전기 대비로도 8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겠으나, 전년동기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은 완화 예상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용 수입액 등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수출대상국 경기 성장률, 제조업 신규주문 등은 다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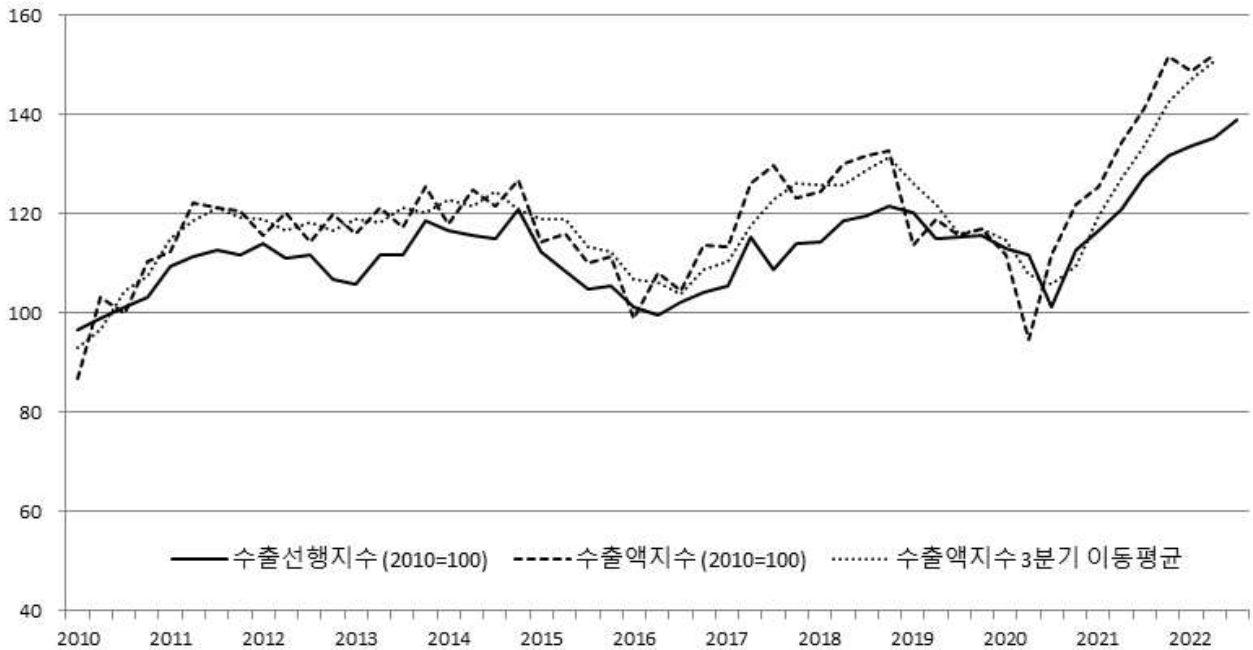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선행지수	112.9	111.6	101.1	112.6	116.7	120.9	127.3	131.8	133.5	135.3	<b>138.8</b>
전년동기대비 증감(p)	△7.2	△3.2	△14.0	△3.0	3.8	9.3	26.1	19.2	16.8	14.4	<b>11.5</b>
전기대비 증감(p)	△2.7	△1.3	△10.5	11.5	4.1	4.2	6.3	4.6	1.7	1.8	<b>3.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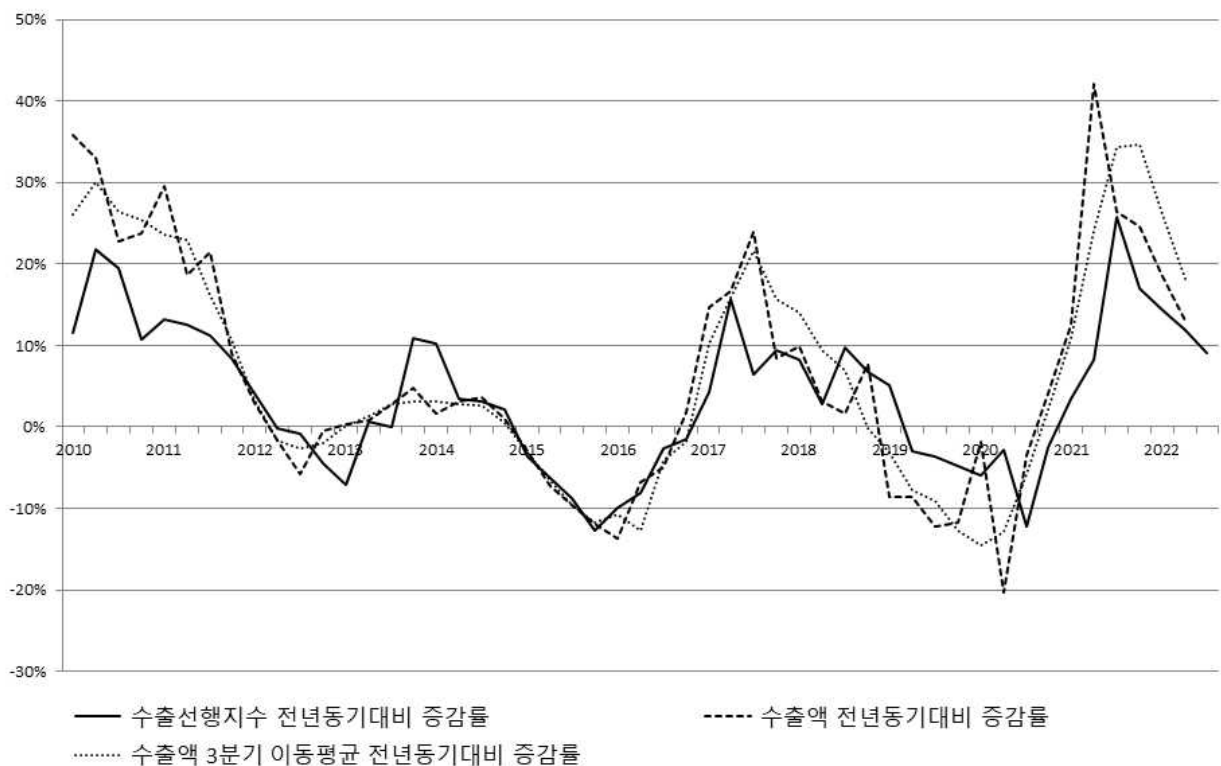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지수 추이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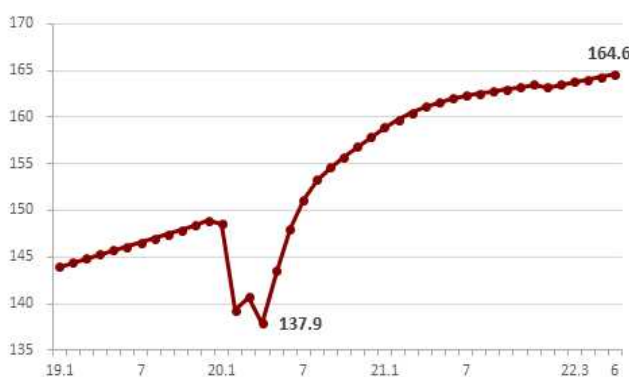




## 수출물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증가폭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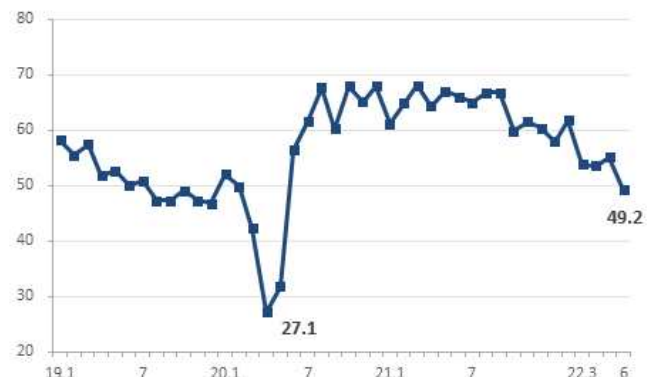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 :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중국도 지역 봉쇄 등의 여파로 전기 대비 성장세 둔화, 반면 일본, 인도 등은 안정적 성장 기조 유지
  -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성장세 반영, 2010=100) : 162.4('21.3Q)→163.1(4Q)→163.4('22.1Q)→**164.2(2Q)**
  -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6.2('21.3Q)→4.1(4Q)→2.4('22.1Q)→**1.7(2Q)**
- **WTO 상품무역지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중국 지역 봉쇄 등으로 인한 상품 무역 차질 영향으로 2분기 지수는 1분기와 유사한 99 유지
  - ※ **Goods Trade Barometer\***(WTO) : 109.7('21.2Q)→110.4(3Q)→99.5(4Q)→98.7('22.1Q)→**99.0(2Q)**
  - \* 10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무역 확장세, 하회하면 감소세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재고 증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위축 영향으로 2분기 지수가 전기 대비 5.2p 하락한 52.6 기록, 6월 지수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5월(31.8)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50) 이하인 49.2를 기록해 경기 위축 시사
  -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에 대해 3~6개월 선행성을 나타냄.
  -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65.8('21.2Q)→66.1(3Q)→60.6(4Q)→57.8('22.1Q)→**52.6(2Q)**
  -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월) : 57.9('22.1)→61.7(2)→53.8(3)→**53.5(4)→55.1(5)→49.2(6)**

수출 대상국 경기지수



자료 : OECD 선행지수 활용 자체 산출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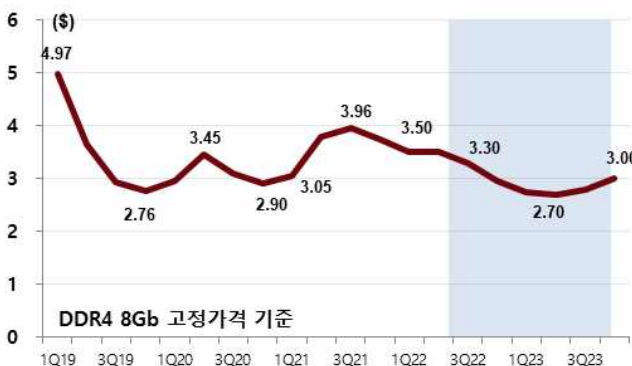
자료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원유가격 등을 비롯한 수입물가의 전반적 상승으로 전기 대비로는 8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로도 5분기 연속 상승한 150.8을 기록했으나 증가폭은 축소
  - ※ 수출용 수입액지수(분기, 2010=100): 103.9('21.2Q)→117.1(3Q)→126.9(4Q)→135.9('22.1Q)→**150.8(2Q)**
  - ※ 수출용 수입액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 대비): 78.5('21.2Q)→62.6(3Q)→65.5(4Q)→50.0('22.1Q)→**45.1(2Q)**



- 가격 경쟁력** : 인플레이션 확대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무역수지 적자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확대 등으로 달러 강세는 더 심화돼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기대비 4.5% 상승한 달러당 1,259.6원** 기록,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상승
- 미국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9.1% 상승하는 등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0.75~1.0%p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원화 가치는 당분간 약세 유지 전망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21.2('21.2Q)→1,157.4(3Q)→1,183.2(4Q)→1,205.0('22.1Q)→**1,259.6(2Q)**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194.0('22.1)→ 1,198.3(2)→ 1,221.0(3)→ **1,232.3(4)→ 1,269.9(5)→ 1,277.4(6)**
- 수출물가** : 높은 수준의 원유 가격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수출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겠으나,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고, 반도체 단가도 하락 전환함에 따라 3분기 이후 수출물가 상승폭은 축소될 전망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07.0('21.2Q)→110.4(3Q)→110.6(4Q)→112.6('22.1Q)→**117.2(2Q)**  
 ※ 수출물가 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달러기준) : 22.3('21.2Q)→22.0(3Q)→18.1(4Q)→12.8('22.1Q)→**9.6(2Q)**
- D램 가격**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3분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  
 ※ D램 가격 (\$,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3.96('21.3Q)→3.75(4Q)→3.50('22.1Q)→3.50(2Q)→**3.30'(3Q)**
-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 둔화로 석유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소폭 하락 전망 우세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3.5('22.1)→92.4(2)→110.9(3)→**102.8(4)→108.2(5)→113.3(6)→103.1(7.15)**

D램 가격 전망



자료 : Omdia

유가 추이



자료 : Petronet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가격)



- **주요 산업** : 전반적인 물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 수출 증가폭은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
- **반도체**는 코로나 특수로 늘어났던 노트북, PC용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하락함에 따라 수출 성장세는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전망
-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점진적 개선, 고가의 RV차량 판매 호조 등 수출 호재도 존재하나, 중국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한 반도체 외 부품 수급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 차질 등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수출 성장세 완화

### 2022년 3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 전망

- 수출물가 상승 및 수출선행지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고, 신규주문 감소 등 **주요국 경기도 둔화**되고 있어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한 1,775억 달러 내외** 전망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1.2Q) 1,567 → **(3Q) 1,645** → (4Q) 1,767 → ('22.1Q) 1,734 → (2Q) 1,771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21.2Q) 42.0 → (3Q) 26.5 → (4Q) 24.5 → ('22.1Q) 18.4 → (2Q) 13.0

- 다만,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 확대** 등으로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경우 수출 증가폭은 더 축소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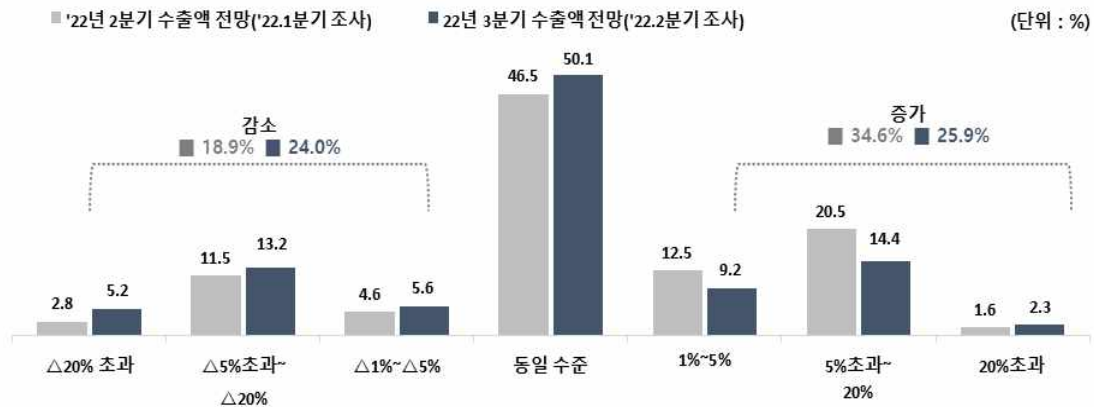


## 2. 수출기업의 '22년 3분기 수출액 전망 (응답 기업 521개사)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증가' 전망 25.9%, '동일 수준' 전망 50.1% 등 7분기 연속 증가세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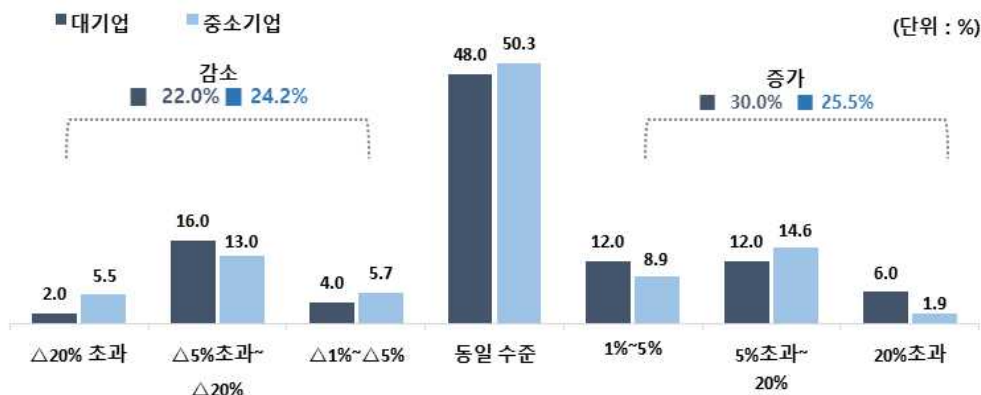
- 전년동기 대비 '증가'(34.6%→25.9%) 전망이 전기보다는 감소해 전 분기에 비해 수출 성장세는 다소 완화될 전망
- 수출액 '감소' 전망 응답률(18.9%→24.0%)이 전기보다 5.1%p 증가해 '22년 2분기보다는 수출 증가폭 축소 가능

### '22년 3분기 수출액 전망 (전년동기 대비)



- (규모별) 대기업(48.0%)과 중소기업(50.3%) 모두 '동일 수준'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증가' 전망 응답률은 대기업(30.0%)이 중소기업(25.5%)보다 높은 반면 '감소' 전망 응답률은 중소기업(24.2%)이 대기업(22.0%)보다 높아, 대기업의 수출 전망이 중소기업보다 더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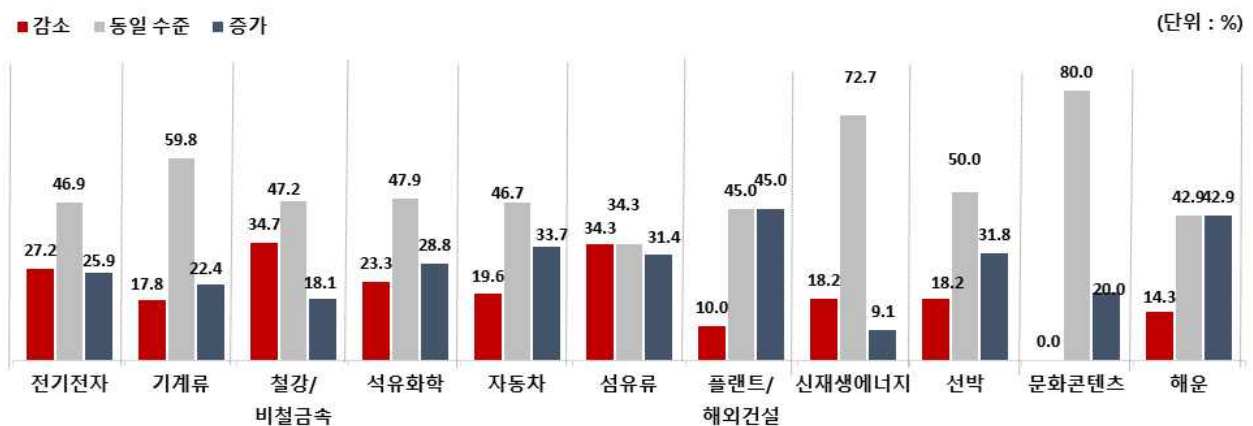
### '22년 3분기 수출액 전망 : 기업규모별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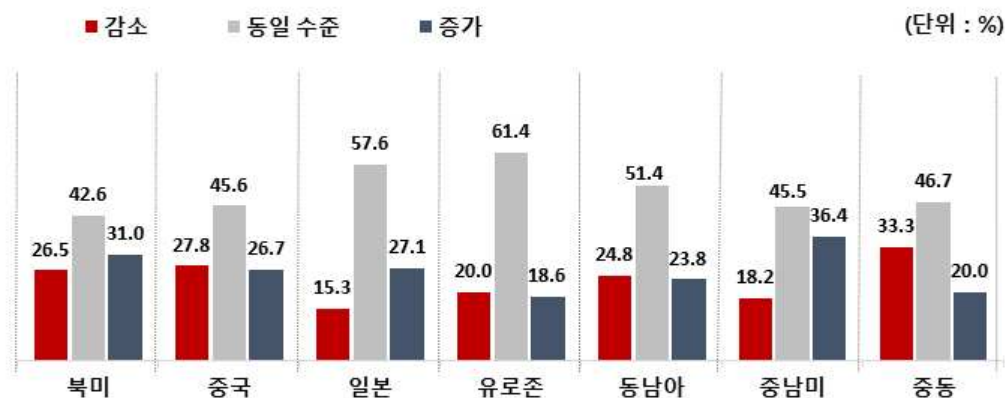
- (산업별) 대부분의 산업이 '동일 수준'이 가장 높은 가운데, 플랜트/해외건설(45.0%), 해운(42.9%), 자동차(33.7%), 선박(31.8%) 등은 타산업 대비 '증가' 전망이 높은 편
- 전년동기 대비 '감소' 전망 응답 비율이 높은 산업은 철강/비철금속(34.7%), 석유류(34.3%), 전기전자(27.2%)

### '22년 3분기 수출액 전망 : 산업별 (전년동기 대비)



- (수출 지역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년동기 대비 '동일 수준' 전망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감소' 전망보다 '증가' 전망이 높은 지역은 북미(감소 26.5%/증가 31.0%), 일본(15.3%/27.1%), 중남미(18.2%/36.4%) 등임.
- 반면 전년동기 대비 '감소' 전망이 '증가' 전망보다 높은 지역은 중국(27.8%/26.7%), 유로존(20.0%/18.6%), 동남아(24.8%/23.8%), 중동(33.3%/20.0%)

### '22년 3분기 수출액 전망 : 수출 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22년 3분기 수출액 증감률 전망 (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20 % 초과	△5%초과 ~ △20%	△1% ~ △5%	동일 수준	1% ~ 5%	5% 초과 ~ 20%	20% 초과
전 체		5.2	13.2	5.6	50.1	9.2	14.4	2.3
규 모	대 기 업	2.0	16.0	4.0	48.0	12.0	12.0	6.0
	중 소 기 업	5.5	13.0	5.7	50.3	8.9	14.6	1.9
산 업	전 기 전 자	6.2	14.8	6.2	46.9	6.2	19.8	0.0
	기 계 류	5.6	7.5	4.7	59.8	7.5	13.1	1.9
	철 강/비철금속	11.1	19.4	4.2	47.2	4.2	8.3	5.6
	석 유 화 학	1.4	19.2	2.7	47.9	9.6	15.1	4.1
	자 동 차	4.3	6.5	8.7	46.7	15.2	17.4	1.1
	섬 유 류	2.9	20.0	11.4	34.3	5.7	20.0	5.7
	플 란 트 / 해 건	5.0	5.0	0.0	45.0	20.0	25.0	0.0
	신 재 생 에 너 지	0.0	18.2	0.0	72.7	0.0	9.1	0.0
	선 박	0.0	4.5	13.6	50.0	13.6	13.6	4.5
	문 화 콘 텐 츠	0.0	0.0	0.0	80.0	20.0	0.0	0.0
	해 운	0.0	7.1	7.1	42.9	21.4	21.4	0.0
수출 지역	북 미	3.2	14.2	9.0	42.6	12.3	16.1	2.6
	중 국	6.7	15.6	5.6	45.6	10.0	15.6	1.1
	일 본	5.1	5.1	5.1	57.6	11.9	11.9	3.4
	유 로 존	5.7	8.6	5.7	61.4	2.9	14.3	1.4
	동 남 아	6.7	16.2	1.9	51.4	8.6	12.4	2.9
	중 남 미	9.1	9.1	0.0	45.5	18.2	18.2	0.0
	중 동	6.7	20.0	6.7	46.7	0.0	13.3	6.7

주 : 총 52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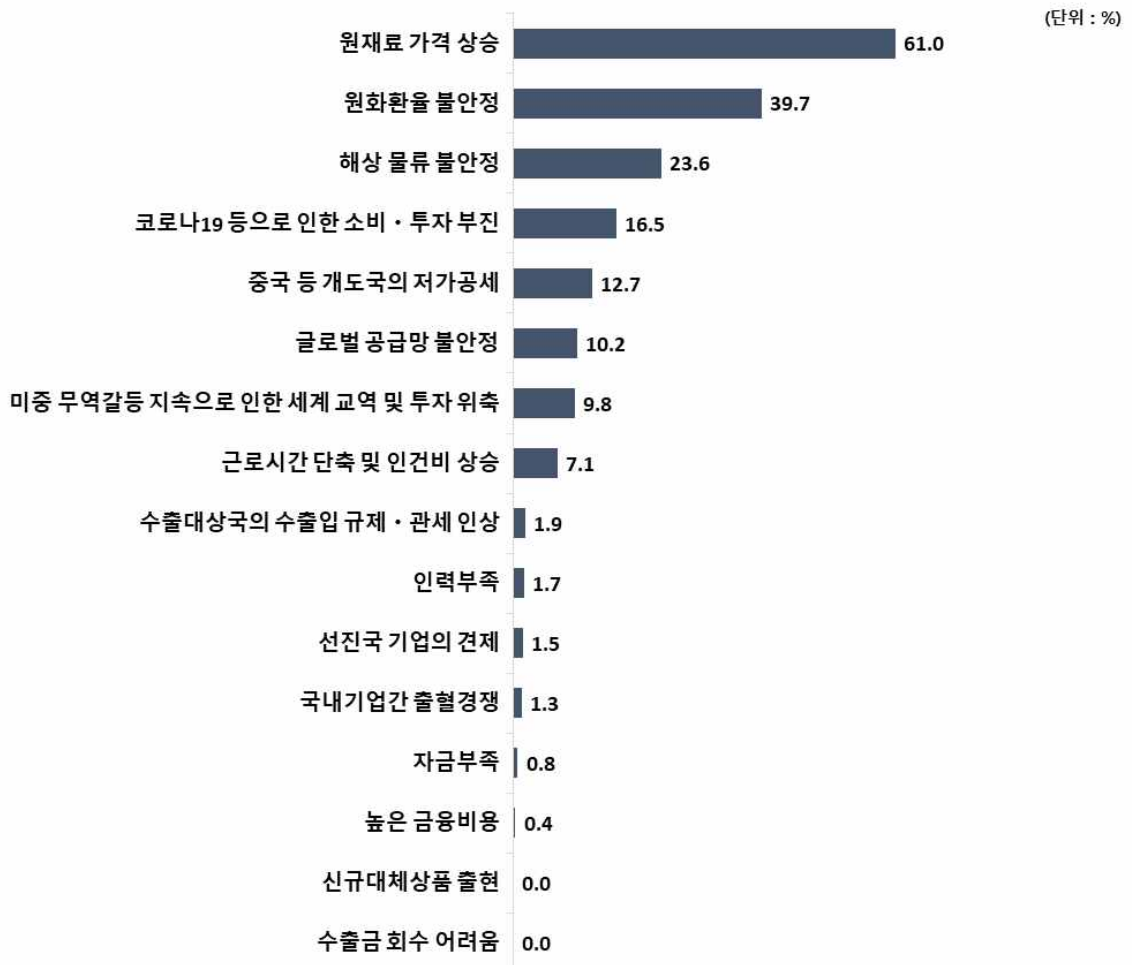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재료 가격 상승’(61.0%), ‘원화환율 불안정’(39.7%), ‘해상 물류 불안정’(23.6%) 순 응답**

- 원유, 철근 등 가격 상승 지속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54.8%→61.0%) 응답률이 증가하면서 전 분기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원화환율 불안정’(26.4%→39.7%) 응답도 크게 증가
- ‘해상 물류 불안정’(33.3%→23.6%)은 전분기에 비해 응답률이 하락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19.4%→16.5%) 및 ‘개도국의 저가공세’(16.7%→12.7%) 응답률도 하락, 반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6.5%→10.2%) 응답률은 증가

#### ‘22년 2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 수 521, 1순위+2순위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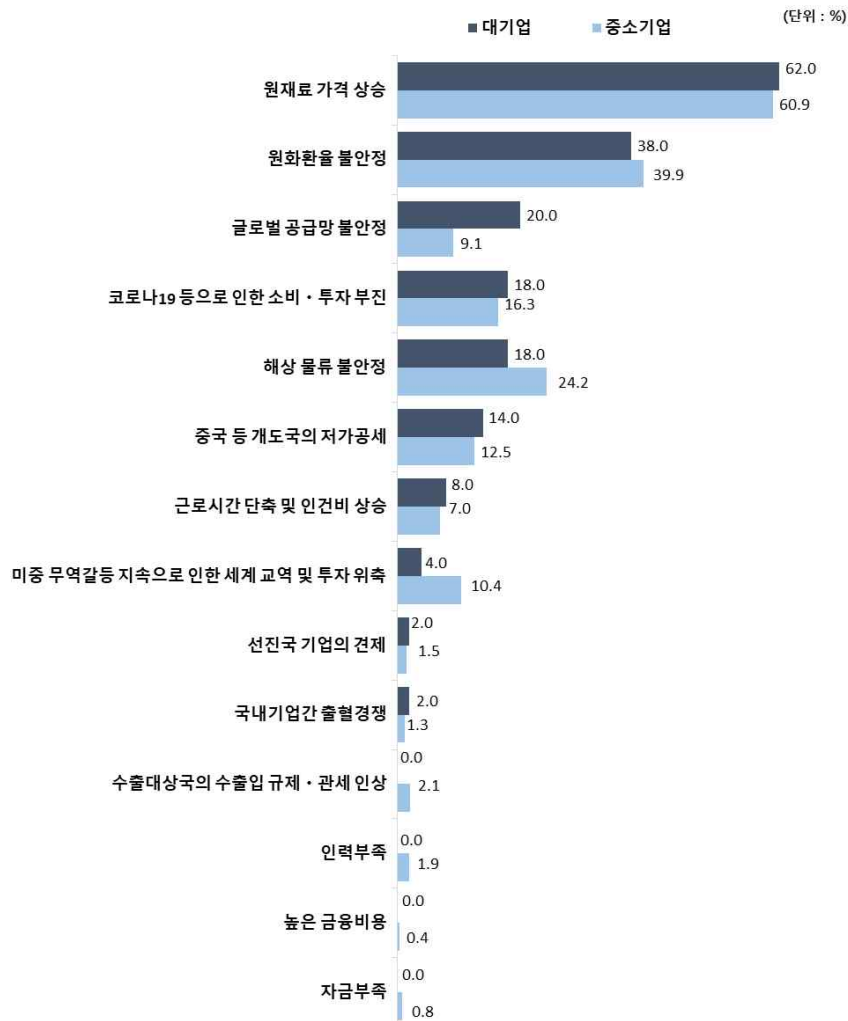




- (산업별) '원재료 가격 상승' 응답률은 석유화학(65.8%), 철강/비철금속(64.1%), 기계류(60.2%), 자동차(55.9%) 업종에서, '원화환율 불안정'은 플랜트/해외건설(60.0%), 신재생에너지(45.5%), 전기전자(43.2%) 등에서 높게 응답
- '해상 물류 불안정'은 해운 운송 비중이 높은 섬유류(37.1%), 석유화학(32.9%), 철강/비철금속(30.6%)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철강/비철금속(13.9%), 기계류(12.1%), 플랜트/해외건설(10.0%) 등에서 높게 응답
- (규모별) 대기업(50.9%→62.0%)과 중소기업(55.2%→60.9%) 모두 '원재료 가격 상승'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대기업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응답률은 대기업(20.0%)이 더 높은 반면, '해상물류 불안정' 응답률은 중소기업(24.2%)이 더 높음.

## '22년 2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응답 기업 수 504, 1순위+2순위 복수응답)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원재료 가격 상승	원화환율 불안정	해상물류 불안정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투자 부진	중국 등 개도국 저가공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미중갈등 등으로 세계교역/ 투자위축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
전 체		54.8	39.7	23.6	16.5	16.5	10.2	9.8	7.1
규 모	대 기 업	62.0	38.0	18.0	18.0	14.0	20.0	4.0	8.0
	중 소 기 업	60.9	39.9	24.2	16.3	12.5	9.1	10.4	7.0
산 업	전 기 전 자	39.0	43.2	16.0	25.9	25.9	7.4	14.8	4.9
	기 계 류	60.2	37.4	25.2	16.8	16.8	12.1	7.5	6.5
	철 강/비 철	64.1	38.9	30.6	15.3	15.3	13.9	8.3	5.6
	석 유 화 학	65.8	38.4	32.9	8.2	8.2	5.5	8.2	9.6
	자 동 차	55.9	43.5	25.0	16.3	16.3	9.8	10.9	8.7
	섬 유 류	44.4	37.1	37.1	14.3	14.3	5.7	11.4	5.7
	플랜트/해건	76.2	60.0	5.0	15.0	15.0	10.0	5.0	5.0
	신재생에너지	41.7	45.5	0.0	18.2	18.2	0.0	0.0	9.1
	선 박	52.0	36.4	13.6	9.1	9.1	4.5	13.6	4.5
	문화콘텐츠	0.0	10.0	0.0	40.0	40.0	30.0	10.0	20.0
	해 운	57.1	35.7	0.0	14.3	14.3	7.1	7.1	0.0
수출 지역	북 미	59.5	33.5	29.7	17.4	17.4	7.1	12.3	8.4
	중 국	51.5	40.0	18.9	20.0	20.0	12.2	7.8	7.8
	일 본	51.9	59.3	11.9	20.3	20.3	5.1	6.8	5.1
	유 로 존	51.7	40.0	32.9	10.0	10.0	12.9	7.1	4.3
	동 남 아	52.1	42.9	14.3	15.2	15.2	12.4	11.4	6.7
	중 남 미	58.3	27.3	36.4	9.1	9.1	18.2	18.2	18.2
	중 동	64.3	33.3	60.0	20.0	20.0	13.3	6.7	13.3

주 : 총 521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 평가 : 조사 직전 분기
  - 실적 전망 : 조사 해당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22년 7월 4일~8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크기 : 대·중소기업 521개 업체 (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71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평가	
수출단가	평가지수	수출단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생산원가	평가지수	생산원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수출물량	평가지수	수출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자금사정	평가지수	자금사정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	

## 3.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2년 1분기부터는 추정 모형 소폭 개정

###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 분	변 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경기선행지수</li> <li>• 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li> <li>•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li> </ul>
수출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실효환율</li> </ul>
산업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수요 기계수주액</li> </ul>